

해 마 다 5 월 이 면

장관을 이루는 철쭉꽃의 진홍색 물결을 보면서

섬진강의 맑은 물과 시원한 강바람이 어우러진

전 남 곡 성 으 로 떠 나 보 자 .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촬영지로 유명해진

옛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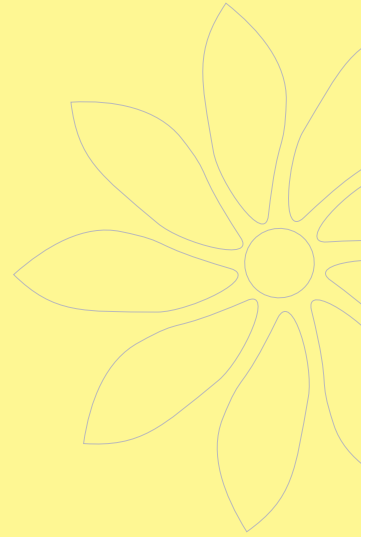
추억을 실어나르는 증기기관차와 함께

초 록 빛 여 유 를 누 려 보 자 .

짙푸른 야생차밭과  
진홍색...  
달리는 .....



# .. 철쭉길로 .. 증기기관차



5월은 계절의 여왕, 산은 이제 연록색에서 진초록으로 생명의 두께를 더해가고 있다. 그래서 5월은 '생명의 계절' 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말이다. 여행은 '일상탈출' 이라고 했듯이 늘 대하는 지루한 일상과는 다른 무엇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오기 위한 것이 여행이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주는 '자연' 과 '문명' 이 전라남도 곡성에 나타났다. 한국 최초의 대규모 야생다원과 증기기관차가 그것이다. 증기기관차하면 영국의 산업혁명기 총아로서 등장해 얼마 전까지 우리 강산을 철로로 누비던 '생활의 벼' 이었다. "쌌엑~"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푸짐한 증기를 내뿜으며 긴 굴을 내달려 빠져나오는 그 박력과 날씬함은 우리 50~70년대 중반까지 국가 기간산업의 기동으로서 나라발전의 중추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70년대 후반기에 사라졌던 추억의 증기기관차가 지난달 30일부터 전남 곡성 옛 역에 등장했다. 곡성군



이 20여 억 원을 들여 관광객 수송용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곡성군은 전에 철도청이 운영하던 구 철로 13.2km를 사들여 여기에 이 '명물'을 얹힌 것이다.

새로 철로가 나면서 뜬어 없애게 된 옛 철로를 싼 값에 사들여 사람들을 추억 속으로 실어 나르는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다. 증기기관차는 이 길을 시속 30km의 속도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단역' 장면을 찍은 옛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30분에 걸쳐 달린다. 종착역인 가정역엔 섬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인 두가교가 있어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건너가기에 좋다.

증기기관차가 지나는 길목에는 줄나무, 철쭉길, 야생다원 등 다른 곳에 없는 명물들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기차가 출발하여 1~2분 거리엔 섬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나무배인 호곡나루가 있다. 거기엔 나무로 만든 반달같은 나룻배가 놓여있어서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달려온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버려두고 잠깐 뱃사공이 되기도 한다. 기차가 달리는 철로 주변엔 사람 키 만큼 자란 철쭉꽃이 장관이어서 해마다 5월엔 진홍색 물결을 이룬다. 그리고 철로는 그 아래 찾길, 물길과 나란히 달리고 강 건너엔 전국에서 유일한 강변 자전거하이킹 도로가 있다.

기차길 구간 중간쯤인 오곡면 침곡리엔 한국 최초의 대규모(5만 평) 야생차밭인 '산철로 다원'이 자리잡

증기기관차가 지나는 길목에는 줄나무, 철쭉길, 야생다원 등 다른 곳에 없는 명물들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기차가 출발하여 1~2분 거리엔 섬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나무배인 호곡나무가 있다. 거기엔 나무로 만든 반달같은 나룻배가 놓여있어서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달려온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버려두고 잠깐 뱃사공이 되기도 한다.



고 있다. 기차에서 내려 이 산철로 야생다원을 40분에 걸쳐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데, 다원 최정상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는 섬진강 물줄기가 장관이다. 산철로 야생다원을 운영하는 '남도야생차지기'는 "최고의 질, 최저의 가격"이라는 사명으로 순수 야생 뒤편차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 곡성 증기기관차 여정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산철로다원 견학 및 야생차 구입문의 : 061-721-3752).

증기기관차는 평일엔 하루 2회(곡성 구역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 출발), 토, 일요일엔 하루 4회 왕복

하고, 요금은 어른 개인 왕복 5000원, 어린이 개인 4500원, 단체는 20명 이상 단위로 500원씩 할인한다.

곡성 구역엔 또 4인용 철로자전거, 곡성 별미음식을 파는 초가집, 객실다방 등이 마련돼 있다. ☎

### :: 전남 곡성 가는길 ::

서울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곡성역까지 3시간 50분 걸린다. 승용차는 서울-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전주-남원-곡성, 또는 전주-(서광주-동광주 나들목 지나)옥과-곡성으로 간다. 서울에서 곡성까지 4시간 30분 걸린다. 숙박은 곡성엔 호텔 1곳, 모텔 2곳이 있다. 곡성 석곡면 돼지 숯불구이가 별미음식이다.

증기기관차 문의전화 : (061)360-8309